

동명대 건축학과, 올해 국·내외 공모전 수상 103명 “최다 수상 갱신”

[김형일]



동명대학교(총장 전호환) 건축학과와 LINC3.0사업단은 2023년 연중 국내·외 공모전에서 최다 수상 기록을 또 갱신했다고 밝혔다. 2021년에는 84명, 2022년에는 95명, 올해는 103명으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우고 있다. 이같은 성과는 높은 취업률로도 직결되고 있다.

이 대학 건축학과는 지난 11월 11일 울산광역시건축대전에서 대상 2명(이채은, 이승민), 특선(안중현), 건축세계상(박여민), 입선 28명 등 총 32명이 수상했다.

10월 28일 제42회 대한민국건축대전에서는 총 10명이 입선 수상했다. 9월 26일 제18회 한국농촌건축대전 장려상 2명(장치원, 김동혁), 입선 25명 등 총 27명이 수상했다. 9월 20일 LH 대학생주택건축대전에서는 우수상 2명(이민태, 김도영)을 기록했다.

9월 26일 부산국제건축대전 장려상(이민호)과 입선 23명, 3월 2일 샤렛(Charette) 국제건축공모전 총 8명 입선 수상과 함께 2023한국해비타트공모전 입선 2명도 주목됐다.

건축학과는 이같은 성과는 LINC3.0산학연연계교육을 통해 학기말 설계교과목 실습결과에 공모전 최근 경향, 실무능력을 통합한 비교과프로그램을 실행해 자기주도학습, 컴퓨터활용, 정보수집, 창의역량을 높인 결과다. 산업체 전문가 초빙 전시 발표 평가 보완 심사 특강 등 산학협력을 통한 이 학과 특성화 요소인 BIM설계 역량을 전국적으로 확장하여 높은 취업률(2022년도 공시취업률 93.1%)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형일 기자(ksolo@busan.com)